

# 농촌복합 행복 거점 만든다

### 순창군 마을 경로당 신축·개보수·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30억원 투입

순창군이 마을 경로당을 안락한 생활복지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올해 30억여원을 투자한다.

군은 고령화로 인해 농촌마을에 고령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 생활공간인 경로당을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농촌마을 경로당은 단순히 몇 시간 머물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식사와 잡자리까지 해결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군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은 물론 마을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찾아가는 영화관,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을 농촌의 복합 행복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로당 환경개선,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에 2억원을 투자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창립 서호, 임동마을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신축 및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한다.

관내 마을 경로당 371개소에 약 20억원을 투입해 운영비, 간식비, 정부양곡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도 277개 마을에 7억 2천만원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모든 경로당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순창군은 경로당을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고령 어르신들이 편안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이 늘어나는 동절기 4개월간 진행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 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내게 도와드리는데는 물론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건강취약마을 만성질환 사업, 당뇨 집중관리마을 프로그램, 농한기 이동 건강교실 등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실시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

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을 복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로당이 집보다 더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 생활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도우미지원사업처럼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371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8,592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이용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동부권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올해 말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실시

남원시 동부권역에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어 3개면(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지역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지원이 강화된다.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취업난으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월면 맞춤형복지팀은 3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의 협조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7개 분야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4회 3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 하반기 지역자원개발 집중 운영, 찾아가는 5일장운영, 재가 중증장애인 확대 등 인권상담소 운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집중 발굴, 면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이다.

진명한 인월면장은 "맞춤형 복지팀의 구성으로 3개면 관할 지역의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 운영으로 지역사회 보장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 주민 삶의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부권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 소비자감시원 활동

###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 등) 제조업소와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 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과, 떡, 식용유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하여 산채어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식품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할 경우 불량식품신고(1399번)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방문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여성청소년계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노인·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날 여성청소년계장은 관내 아동시설(그룹홈)을 방문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를 상대로 시설내 아동학대 발생사례와 유형,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내 학대 여부,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신원확인을 진행했다.

특히 작년에 여성청소년계에서 직접 연계한 한 학생을 직접 면담하며, 학교 및 시설 내 생활과 교류관계 그리고 진로 등에 대하여 상담했다.

또한 관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무엇인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하였으며 시설 내 여자 장애인 대상으로 여경과의 1:1 면담을 통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오수면 농촌지도자회 정기총회 열어

### 전년도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논의·회장 이취임식 등 진행

임실군 오수면 농촌지도자회(회장 김명희)는 25일 오수면 남부농기계인대사업소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2018년도 오수면 농촌지도자회를 이끌어 갈 김명희 신임회장은 "농촌의 안정된 성장은 물론 균형 발전과 면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 현안 사업들이 원활

히 추진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오수면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강승 오수면장은 지난해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열정으로 풍작을 이루어 낸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면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주민 문화생활 영위 위해 발전방향 모색”

### 덕치면 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임실군 덕치면은 25일 덕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과 활동 결산보고 및 2018년도 예산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 기회를 부여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폭넓은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다.

김재기 면장은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늘 솔선수범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덕치면은 정기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임실군 재산관리 발빠른 행정력 주목

### 정부 공유재산 관리 입법예고안 발표 전 공유재산 TF 가동

임실군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임실군은 앞장서 조지를 정비, 종합적인 재산관리에 발빠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는 관리보전에 그치고 있는 현실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앞선 지난 4일자 정기 인사에 재산관리만을 전담하는 TF팀을 설치해 추진에 벌써 시동을 걸었다.

이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향후 그 발전이 매우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번 TF팀은 공유재산 특히, 군유림이 산재되어 있어 이용의 효율화가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무단점유 부분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통해 행정조치 후 적법화를 추진, 분산된 군유림에 대해서는 집단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임실군은 전형적인 내륙 산악지역으로 70% 이상이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

다 경제성 있는 산림소득이 창출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임업소득에 행정적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임실 N치즈축제,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섬진강 예코뮤지엄 사업 등에 관광프래임 산림기반을 마련 관광임실 만들기 등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인식해 TF팀을 만든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 임실의 또 다른 소득창출의 기반을 후손에게 마련해 주고 재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